

2022 년 가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

전체 주제: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서 생활함

메시지 14  
한 가지 것을 생각하고 비결을 배움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서 생활함

성경: 엡 4:20-21, 빌 2:2, 3:12-14, 4:6-8, 11-13

- I. 빌립보서에서 ‘한 가지 것’은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알고 체험하는 것을 가리킨다. ‘한 가지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붙잡고, 소유하기 위해 그분을 추구하는 것이다 — 빌 1:20-21, 2:2, 5, 3:7-14, 4:13.
- A.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 살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극도로 사랑함으로 그분을 누려야 하고, 그분을 사랑하려면 우리의 생각이 굳어지고(고후 3:14), 눈멀고(고후 4:4), 반역적이고(고후 10:4-5), 부패한(고후 11:2-3) 데서 구출받아야 한다.
- B. 우리의 생각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과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 외에 다른 것에 초점을 두면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갖게 되고 우리 가운데 불일치가 생긴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가장 충만하게 누리고 얻는 것이다 — 고전 1:10, 빌 3:8-9, 14, 4:2.
1. “여러분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혼 안에서 연결되고, **한 가지 것**을 생각하여, 나의 기쁨이 넘치도록 해 주십시오.”—2:2.
  2. “내가 이미 획득하였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힘을 다하여 추구할 뿐입니다. 형제님들, 나는 아직 내가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나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쫓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로 부르셨습니다.” — 빌 3:12-14(직역).
  3. “마르다여, 마르다여, 그대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애쓰지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 눅 10:41 하-42.
  4. “내가 여호와께 청하여 온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와 집에 거주하며 여호와와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네.” — 시 27:4.
  5.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네가 첫째가는 사랑을 버린 것이다.” — 계 2:4.
- C.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한 가지 것,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를 중심과 전부로 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다 — 골 3:10-11.
1. 주님의 회복 안에서 초점을 두고 강조하고 사역해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다 — 딤후 1:3-4.
  2.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내용은 그리스도이다. 사실상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역의 세 단계 안에 계시는 그분 자신이 신성한 경륜이시다(요 1:14, 고전 15:45 하, 계 1:4, 3:1, 4:5, 5:6). 하나님의 갈망은 순전히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회복하는 것이다(골 1:17 하, 18 하, 고후 12:2 상, 2:10, 3:3).
- II. “나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만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천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고 풍부할 상태에 있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각각의 일과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 빌 4:11 하-13.
- A. ‘비결을 배웠습니다.’라는 말은 바울이 새로운 상황, 새로운 환경에 들어갔다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들어갈 때마다 그 환경에서 사는 비결을 배워야 한다.

1.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는 직역하면 "나는 입문하였습니다."를 의미한다. 이 은유는 어떤 사람이 비밀 단체에 입문하여 그 단체의 기본적인 원칙을 배운 것을 가리킨다.
  2. 바울은 그리스도께 돌아킨 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입문하였다. 그런 다음 바울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고(골 3:4), 그리스도를 살고(빌 1:21 상), 그리스도를 확대하고(빌 1:21 상), 그리스도를 얻고, 교회생활을 하는 비결을 배웠다(빌 1:8, 19, 2:1-4, 19-20, 4:1-3).
- B. 믿는 이들은 제자들, 배우는 이들, 곧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일생의 실지 상태의 모든 실재 안으로 안내하시는 실재의 영을 따라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이들이다. 예수님의 생활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삶이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활 안에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셨다 — 요 16:13, 엡 4:20-21.
1.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이 땅에서 그분의 인성 안에서 그분 자신을 부인하심(요 5:19, 30)으로 하나님을 사신 하나님-사람의 본이신 그리스도의 인간 생활을 통해 제자화된 이들이며 그분의 인간 생활은 사람에 대한 그들의 관념을 변혁시켰다(빌 3:10, 1:21 상).
  2.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인성 안에서 자신을 부인함으로 하나님을 사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고(히 5:8), "순종하시어 죽기까지 하셨으며,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빌 2:8).
  3.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아닌 부활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에 의해, 곧 순종의 생명에 의해 그분의 본에 따라 그리스도를 배운다(마 11:29). 제자는 자신의 인간 생명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을 사는 사람이다.
  4. "나는 회복 안에서 십팔 년 동안 니 형제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보았다. 내가 형제님에게서 본 모든 것이 나를 제자화하는 것이 되었다."(*위트니스 리 전집*, 1994-1997 년판 5 권, "활력 그룹" 영문판 76 쪽).
  5. 주님의 제자들, 그분을 배우는 이들로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분의 훈련 아래 있으며, 그분은 "인자와 사랑에 대한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시다. 이 은혜는 "우리를 훈련시킴으로써,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적인 욕망을 거절하게 하고, 현시대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하며, 복된 소망, 곧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시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게" 한다 — 딤후 2:11-13, 3:4.
  6. 교회 생활 안에서 자매들은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연장한 자매들은 주님과 하나 되어 젊은 자매들을 훈련시켜 "남편을 사랑하게 하고 자녀를 사랑하게 하며 신중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집안일을 잘하게 하며 선하게 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딤후 2:3-5.
  7. 주님의 제자들로서 우리는 "가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십시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은 가련한 죄인들에게 긍휼을 보여주시기를 갈망하신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 안에서 긍휼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 마 9:12-13, 미 6:6-8, 막 12:33.
- C. 우리는 '은밀한 가운데' 주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이들(마 6:4, 6, 18)이 되어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사 45:15)과 하나 됨으로써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분이신 아버지의 임재를 관심해야 한다(마 6:18).
1. 우리는 우리의 '골방'(마 6:6)이자 '가장 높으신 분의 비밀한 곳'(시 91:1)인 우리의 영 안에 머무름으로써 우리의 순종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한다.
  2. 우리는 그리스도께 우리를 "[그분의] 임재 은밀한 곳"인 우리의 영 안에 숨겨 주시도록 구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숨어야 한다(시 31:20). 우리의 영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분 안에서 세상의 왕인 사탄은 아무 것도 — 어떤 것에서도 입지나 기회나 소망이나 가능성을 — 가질 수 없다(요 14:30).
- D. 빌립보서 4 장의 비결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다 — 빌 4:13, 영한 동반 찬송가 564 장.

1.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었고(고후 12:2 상), 다른 이들이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기를 갈망했다. 빌립보서 4 장 13 절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능력을 주신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했다. 이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에 대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결론의 말이었다. 이것은 요한복음 15 장 5 절에서 주님과 우리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해 말하는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라는 그분의 말씀을 역으로 말한 것이다.
  2. 바울은 전적으로 율법 아래서 유대 종교 안에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항상 율법 아래 있었다. 그러나 회심했을 때 그는 율법과 그의 이전 종교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 — 고후 12:2 상.
  3. 이제 바울은 그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기대했다. 이것은 그의 온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잠기고 그리스도로 적셔져 그를 보는 모든 사람이 그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기를 열망했음을 가리킨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때만 그리스도께서 표현되시고 확대되실 것이다 — 빌 3:9 상, 1:20.
  4. 한 면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능력 주심으로 만족하는 생활을 살 수 있다(빌 4:11-12). 또 다른 면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능력 주심으로 참되며, 장중하며, 의로우며, 순수하며, 사랑스러우며, 평안이 좋을 수 있다(빌 4:8).
  5.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바울의 말은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인간 미덕들이신 그분을 삶으로써 그분의 무한한 위대성 안에서 그분을 확대하는 것에 적용된다. 이러한 미덕들을 사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일을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다.
- E.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실질적인 길은 빌립보서 4 장 6 절과 7 절에서 볼 수 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1.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평안이시며, 하나님의 평안은 모든 사람의 이해를 초월한다 — 사 9:6, 요 14:27, 눅 7:50, 롬 3:17, 5:1, 8:6, 15:13, 16:20.
  2. ‘하나님께’는 누군가를 향하는 동작을 나타내며, 생생한 연결과 교제의 의미에서 교통을 함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의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가운데’이다 — 빌 4:6.
  3.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한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사실상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가 기도로 그분과 교통할 때, 우리 안에 주입된 평안이신 하나님이다(빌 4:9). 하나님의 평안은 고민에 대한 안정제이고, 염려에 대한 해독제이다(요 16:33).
  4. 평안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순찰하시면서, 우리가 고요하고 안정되도록 지키신다(비교 사 30:15 상). 염려 없는 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우리의 운명을 이루기 위해 좋고 나쁜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배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롬 8:28-30, 마 10:29-31, 고후 4:15-18).
- F.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비결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왕, 주님, 머리, 남편이신 “예수님과 기도 안에서 교통하는 것”이다(영한 동변 찬송가 784 장). 하나님을 접촉하는 기도는 마음에서 나오는 진실한 말로 구성된다.
1. 우리는 슬프고 우울하고 실망스러운 상황에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께 가져가서 그것에 대해 주님께 말씀드려야 한다. 그분은 가장 잘 듣는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감정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동정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울 수 있다.
  2. 우리가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쏟아낼 때 주님과 우리의 친밀함은 한 단계 더 전진하고 우리는 그분을 조금 더 알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럴 때 그분과의 친밀한 접촉은 그분과의 일반적인 교통보다 훨씬 더 좋다. 이러한 접촉에 의해 우리는 생명 안에서 자란다 — 시 62:6-8, 56:8, 비교 삼상 1:15.

3.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서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고 자신의 기쁨이나 슬픔을 주님과 나누는 적이 없으며 자신의 내밀한 문제들에 관해 주님께 말해본 적이 없다면 그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통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는 것이고 주님을 결코 깊이 알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오직 모든 것을 주님께 말씀드림으로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끌릴 수 있다.
4.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동정하신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기꺼이 짊어지시며,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으실 때 기뻐하신다. 살아 있는 생명수이신 그분을 누리려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반석이신 그분께 말씀드려야 한다 — 민 20:8, 고전 10:4, 출 17:6, 영한 동번 찬송가 248 장.
5. 시편 102 편의 제목은 “고통당하는 사람이 지칠 대로 지쳐 여호와 앞에 하소연하는 기도”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불평이 하나님께는 최상의 기도, 가장 유쾌한 기도일 수 있다. 우리가 불평하는 동안 하나님은 즐거워하신다. 그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가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도록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이다 — 롬 8:28-29.
6. 시편 73 편은 추구하는 시편 작가의 진실한 기도에 대한 기록이다. 그는 자기 자신의 고통과 악인들이 잘되는 것 때문에 자칫 실족할 뻔하였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순수하게 한 것이 헛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물질적으로 잘되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온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 시 73:12-16.
  - a. 시편 작가는 악인들이 잘되는 것에 관해서 느꼈던 당혹감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얻었다. 먼저, 하나님의 성소 곧 그분의 처소는 우리의 영 안에 있으며(엡 2:22), 또한 하나님의 성소는 교회이다(딤후 3:15).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야 하며 교회 집회에 가야 한다. 일단 우리가 성소 안에 곧 영과 교회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악인들의 상황에 대한 또 다른 관점 곧 특별한 인식을 갖게 된다(시 73:18-20). 우리의 영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신성한 계시를 받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된다.
  - b. 주님을 추구하는 이는 주님과 정직한 대화와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감을 통해 결국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는 정도까지 주님께 빛 비춤을 받았다 “하늘에 주님 외에 누가 제게 있겠습니까? / 땅에서도 주님 외에 바랄 것 없습니다. 제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도 / 하나님은 제 마음의 반석이시며 제 영원한 뭉이십니다.” — 시 73:25-26.
  - c. 추구하는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이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고, 그분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누림에서 벗어나지 않는 데 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의 궁극적인 갈망은 우리가 하나님-사람이 되는 것, 신격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과 똑같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 사 43:7, 고전 10:31, 6:20, 벧전 4:11.